‘지옥철’ 된 뉴욕 지하철…연막탄 터트린 뒤 무차별 총격

범인 방독면 쓴뒤 ‘탕탕탕’
출근시간 아비규환…최소 16명 부상
경찰, 초록색 옷 흑인 남성 추적중

12일(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께 미국 뉴욕시의 맨해튼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 N트레인 열차 안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열차가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36번가역에 거의 진입할 무렵 키 165㎝에 육중한 체형의 한 흑인 남성이 갑자기 방독면을 꺼내 쓴 뒤 연막탄을 던진 것이었다. 연기가 객차 전체를 집어삼킬 무렵 곧이어 ‘탕탕탕’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차에 타고 있던 야브 몬타노는 CNN방송에 “처음에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며 “의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승객은 다른 객차로 연결된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으나,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몬타노는 전했다.

바닥에 뿌려진 피를 보고 상황을 깨달았다는 몬타노는 “내가 본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잠긴 문을 뚫고 나가려 하던 장면”이라며 “다행히 열차가 역으로 빠르게 들어섰고 모두가 허둥지둥 빠져나왔다”라고 밝혔다.

출근과 등교가 한창이던 시간이어서 이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40~50명이나 됐다고 몬타노는 추정했다.

36번가역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은 도착한 열차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피투성이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자 뒤늦게 비상상황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총격은 승강장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패닉 상태에 빠진 승객들은 3개 노선이 지나는 이 지하철역에서 다른 열차로 뛰어들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 옆 선로로 들어온 R트레인 지하철은 부상자를 비롯해 대피하던 시민들을 태운 채 황급히 출발했다.

지하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모두 10명이 총에 맞았고,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깔려 다친 부상자까지 모두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5명은 중태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사건 직후 소방관들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파 장치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경찰은 실제 폭발물은 없었다고 정정했다. 도주 중인 용의자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입는 초록색 안전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NYPD는 밝혔다.

경찰은 36번가 지하철역 인근 10여개 블록을 봉쇄하고 범죄 현장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테이프를 주위에 친 뒤 헬기까지 투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부는 주변 학교들에 대피 명령(shelter in)을 내려 학생들을 학교 안에 머물게 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금지했다.

이 지하철역으로부터 한 블록 내에만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 /연합뉴스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의 정차한 전동차에서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돕는 것 맞아?”
미적대는 독일에 의구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했던 독일이 실제 행동은 미적거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서방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독일이 러시아 침공으로 급선회하는 듯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방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매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고 군대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약 135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외에서 박수도 받았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상황은 6주 전과 다르다. 러시아군에 의한 대량 학살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독일은 즉각적인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금수 조치를 배제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에 100기의 장갑차를 보내겠다는 계획도 “독일이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질질 끄는 모양새다.

이에 독일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이 미적거리는 이유로 우선 2차 대전 이후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평화로운 수출국이었고, 이를 쉽게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연합뉴스

전세계 인플레이션 몸살
선진국 60% 물가상승률 5%
전쟁으로 연료·식품가격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으면서 다수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을 계기로 원유와 식량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경제를 ‘새로운 인플레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동월보다 8.5% 급등해 1981년 12월 이후 40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32%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11일 갤런당 4.33달러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3월 정점을 기록한 뒤 최근 안정되는 추세지만 올해 들어서만 이미 약 35% 올랐다.

전쟁 여파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핵심 생산지인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의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밀값은 약 42%, 대두는 약 26%, 옥수수는 약 30% 각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3월 식량가격지수(FFPI)도 전달보다 12.6% 뛰어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

“사람·숲 죽이는 금광개발 반대”…브라질 원주민 6천여명 시위
광업에너지부에 몰려가 항의
검찰, 원주민 상대 성매매 수사

브라질의 원주민 수천 명이 아마존 열대우림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광 개발 활동을 막아달라며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시위를 벌였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6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원주민들은 전날 브라질리아 시내 광업에너지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진흙과 붉은색 페인트 등을 던지며 정부가 불법적인 금광 개발 활동을 부추기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원주민들은 ‘피 묻은 금: 사람과 숲을 죽이는 불법 금광 개발에 반대하는 행진’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통해 “금광 개발을 위해 살충제가 사용되면서 원주민과 숲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주민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부와 사법부에 촉구했다.

전날 시위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벌어졌다.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야노마미 부족민 보호 단체인 ‘후투카라 야노마미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식료품을 주는 대가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검찰은 협회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으며,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은 원주민 거주지역을 파헤치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주유소 앞에 늘어선 삼륜차 1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중심가에 있는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삼륜차가 길게 늘어서 있다. 스리랑카는 외화 부족으로 연료와 식품,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미 전문가에 징역 5년3개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준 미국인 전문가에게 징역 5년3개월형이 선고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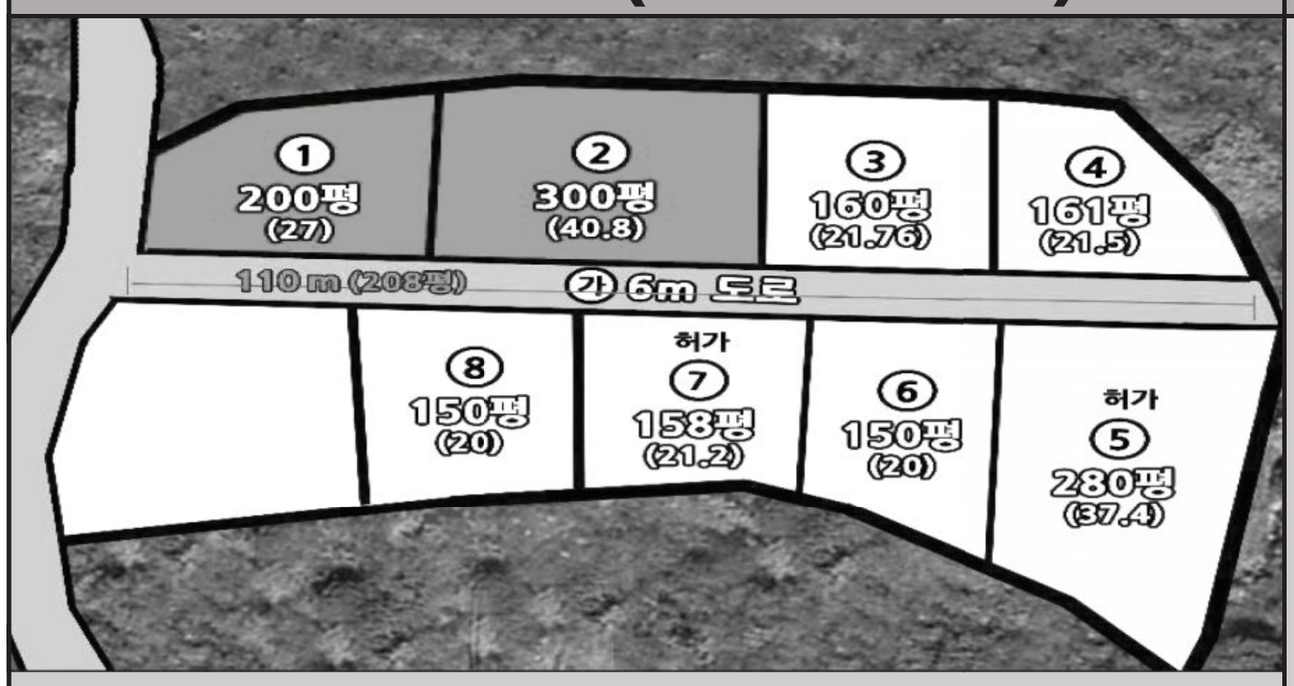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